

무림, 창립50주년기념식 개최

무림은 지난 7월 26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신사동 사옥과 인근 행사장에서 이동욱 회장 가족과 직원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가족초청행사로 시작됐는데, 본사로 초청된 임직원 가족들은 무림 50년사 사진전을 관람하고 새로운 CI 및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무실을 시찰했다. 또한 새롭게 제작된 배지 전달식과 50년 사사 봉정식, 떡케이크 커팅식 등 창립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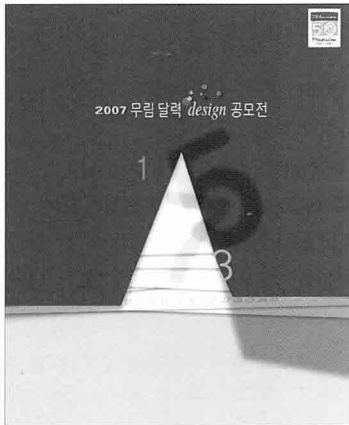


이동욱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광의 50년을 있게 해 준 무림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새로운 사명과 통합된 CI를 중심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림페이퍼 진주공장과 무림SP 대구공장도 각각 기념식을 열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자 시상 및 배지 전달식 등의 행사를 갖는 등 창립 50돌의 의미를 공유했다.

무림페이퍼 · 무림SP, 달력디자인 공모전

무림페이퍼와 무림SP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달력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2007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팀 단위 참가도 가능하다. 참가자는 자유 주제로 2007년 벽걸이 달력과 탁상 달력을 자유롭게 디자인,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이고, 발표는 9월 15일 무림페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도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림 홈페이지(www.moorim.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제지, 4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 타결



한국제지 노동조합이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모두 사측에 위임, 4년 연속 무교섭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제지 노사는 지난 8월 10일 조인식을 갖고 ▲기본임금 4%의 임금인상률 ▲종합건강검진 배우자까지 확대 실시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신설 등에 합의했다. 회사 측은 2000년 임금교섭에서 노조 측이 기대한 인상률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조합의 능동적 참여를 주문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끌어 올린 바 있다. 한국제지 경영진은 투명경영 실천과 노사화합을 위해 회사 경영실적을 매월 공시하여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수시로 현장 직원과 대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3년 노동조합이 임금교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측에 위임함으로써 현재까지 4년 연속 무교섭 타결에 이르고 있다.

한국제지, 고급 백상지 ‘뉴크린 유광지’ 출시

한국제지가 두께를 한층 증대한 신개념 백상지 ‘뉴크린 유광지’를 출시했다.

‘뉴크린 유광지’는 지난 3월 한국제지가 준공한 최첨단 백상지 전용 설비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이다. 한국제지는 신제품 ‘뉴크린 유광지’에 제품 품질을 높이는 제지용 충전제 PCC(경질탄산칼슘)를 사용하여 기존 유통 중인 백상지에 비해 더욱 증대한 ‘두께’로 품질 차별화를 꾀했다. 우수한 두께를 갖춘 ‘뉴크린 유광지’는 뒤틀림이 적어, 평판 인쇄시 용지의 급지와 작업성이 균일하며, 특히 운전용 인쇄시 권취의 펄럭임이 없어 작업성이 우수하다.

인쇄품질이 탁월한 종이는 불빛에 비추어 보면 균일한 지합(紙合, 섬유의 퍼짐상태)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는데, ‘뉴크린 유광지’의 우수한 지합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국제지는 ‘뉴크린 유광지’의 우수한 인쇄품질을 내세워 ‘잉크가 잘 묻고 균일하며, 뒤틀림이 없는’ 고급 백상지를 원하는 소비자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신호제지,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참여



신호제지는 지난 7월 19일 신탄진공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부설기관인 뉴패러다임센터(소장 김훈)와 평생학습 컨설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고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경영진을 비롯한 현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 프로젝트의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뉴패러다임 컨설팅은 현장주도적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근로자를 양성하고 불량률 및 산업재해 등의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의 습득,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뉴패러다임 모델'은 최근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한꺼번에 이루는 등 양극화 극복을 위한 동반성장과 노사상생을 위한 경영혁신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신호제지와 뉴패러다임센터는 이번 컨설팅 MOU를 통해 아산공장과 신탄진공장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현황과 역량을 분석해 새로운 교육매뉴얼, 학습방법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한창제지 · 신풍제지, 공동생산 · 판매키로

백판지 생산업체인 한창제지와 신풍제지가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 생산 및 판매에 나선다. 신풍제지는 평택의 백판지 공장을 폐쇄, 생산을 한창제지에 위탁하고 한창제지는 자사의 모든 제품 판매를 신풍제지에 맡기는 방식이다.

김중선 한창제지 부회장은 지난 8월 3일 "공급 과잉과 중국 등 해외 수출의 이익률 감소로 이대로 간다면 백판지 업계는 2년 안에 공멸할 상황"이라며 "신풍제지와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두 업체의 생산 규모를 줄이는 등 생산 및 판매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장 생산성에서 우위에 있는 한창제지는 생산에 전념하고 신풍제지는 판매를 특화하는 게 전체 그림"이라며 "하반기 중에 순쉬운 작업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림, 정오 만찬 이벤트 개최



무림은 지난 8월 18일 을지로 및 충무로 일대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네오아트SE Summer Event, 하하호호 neo와 점심식사를'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번 이벤트는 무림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새롭게 바뀐 사명과 CI 및 BI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림 임직원 5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을지로 및 충무로 일대의 인쇄사·출력사·지류유통사·고객들을 방문, 무료음식쿠폰을 배포하며 새로운 사명인 '무림페이퍼·무림SP'를 적극 홍보했다. 이를 통해 800여명의 고객이 인근 음식점을 찾아 냉면, 버섯탕 등 맛있는 점심식사를 즐겼으며 명함 추첨과 게임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풍기와 티머니 등 푸짐한 경품도 선물받았다. 무림의 노회동 마케팅실 실장은 "무더위에 종이 인쇄에 힘쓰는 고객들에게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삼원갤러리, Sappi 2005 수상작 전시

삼원특수지가 지난 8월부터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Sappi Printers of the Year 2005를 상설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5년도 공모전에서 각 대륙을 대표해 선정된 수상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인쇄물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Sappi Printers of the Year는 1979년 처음 시작된 인쇄 공모전으로 연례보고서, 브로슈어, 책자, 패키지&라벨, 캘린더, 카탈로그, 잡지, 광고인쇄물 등으로 공모 분야를 나누어 대륙별로 수상작을 뽑고, 다시 대륙별 금상을 모아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행사이다. 여기서 선정된 작품은 'Sappi International Printers of the Year' 행사를 통해 각 대륙을 순회하면서 전시된다. 참가자격은 sappi의 종이 제품을 70% 이상 사용한 작품에 한해 광고디자인회사, 출판사, 종이판매업체 등 제한이 없다. 매년 5월에서 10월 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